

1006(목) 마태복음 11-13장 당황스러운 메시아

그토록 고대하며 갈망하던 메시아가 오셨지만,
우리들은 예수님이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(11:3).
각자의 신념이나 이상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.

<세례 요한>은 심판자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(3:7, 11:2).
불의의 세력들을 정죄하고 정의를 속히 구현할 메시아,
간헐 자를 해방시킬 강력한 구세주를 기다린 것입니다(눅9:12).
백성들도 신속한 혁명, 정치적 변혁을 원했습니다(21:9, 27:21).
바리새인(토라), 에세네파(규율), 헤롯(성전) 등 모두가
자기 식대로 새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

예수님은 <오래된, 새 길>을 보이셨습니다(11:13-14, 13:52).
참 율법으로 <율법적인> 억압과 위협들을 걷어내시고,
예수님만 아시는 <아버지>의 진심과 진실을 보이시며
새로운 관계들로 초대하셨습니다(11:28-30, 12:50, 13:35).

예수님의 말씀과 정체가 드러날수록 갈등이 커졌습니다.
왕조, 성전에 대한 견해, 율법에 대한 깊은 해석(12:3, 6, 13:54),
<아버지>와 교제하는 예수님의 생경한 방식들은(11:25-27)
자기 신념으로 무장한 자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.
(11:6, 19-24, 12:8, 14, 16, 23-24, 41 13:15, 57)

알곡처럼 보이지만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(12:36-37, 13:29).
좋은 밭 같아 보여도 좀 더 기다려봐야 합니다(12:33, 13:1-23).
하나님은 심기우고 자라고 열매 맺을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.
신속한 심판대신 속도를 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(11:29).

조용하고 부드럽지만 근본적인 혁명 끝에(11:5-6, 12:17-21)
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(13:30, 40, 49-50).
주님은 결코 겉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.

나를 위해 속도를 조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까?

- ❶ 나의 신념/이상/기대/방식을 신앙이라 착각하지 않습니까?
- ❷ 나의 마음 밭에는 씨앗이 심기고 자라며 열매 맺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마태복음 11-13장